

# CGN TV

M A G A Z I N E | Summer 2015 \_ Vol. 9



[www.cgntv.net](http://www.cgntv.net)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Gloc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59길 8 CGN TV T. 02)796-9800 F. 02)749-6638 [www.cgntv.net](http://www.cgntv.net)



#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청년이 갖는 의미는  
제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늘 청년처럼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청년이시지요.  
제 삶은 그분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 CGNTV 차세대 프로그램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중에서

## CONTENTS

Summer 2015\_Vol.9

포토에세이 \_ 사진작가 신미식

### I. 특집-차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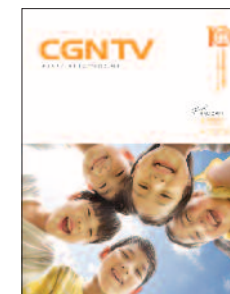
- 04 CGNTV '차세대' 프로그램1 \_ 나는야 주의 어린이  
TV로 만나는 주일학교  
  
<나는야 주의 어린이> \_ MC 신동식 목사, 개그우먼 허민  
“지구촌 어린이들과 만나 기뻐요”
- 08 CGNTV '차세대' 프로그램2 \_ 예수님이 좋아요  
<예조>를 만드는 사람들
- 11 CGNTV '차세대' 프로그램3 \_ 해외 지사  
해외 지사 차세대 프로그램

### II. 선교

- 12 CGN 인터뷰 \_ <블랙마운틴> 내레이션 영화배우 추상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길목에서
- 14 제작후기 \_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못 다한 이야기  
선교를 낳은 선교
- 17 기획 \_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 1. 서상륜(徐相崙, 1849~1925)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 팔러 돌아온 매서인, 서상륜
- 20 선교지의 아침 \_ 인도네시아 김중국 선교사  
32년 선교사의 깊은 선교지 사랑

### III. CGN 소식

- 22 CGN 초이스  
'통일한국' 테마 특집 프로그램
- 24 CGN 뉴스 \_ 국내, 해외
- 28 편성표
- 30 후원자 스토리  
중국 한 성도로부터
- 31 후원안내
- 32 에필로그 \_ CGNTV 실행위원장 배종수 장로  
뜻대를 향하여



#### COVER STORY

하나님의 소망 '차세대'.  
CGNTV는 차세대와 함께 지구촌 복음화의 내일을 꿈꿉니다.  
  
내일의 희망 '차세대'.  
CGNTV는 차세대 크리스천 교육 문화를 선도합니다.

####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년 6월 20일(통권 제9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정현우,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정현우, 박민수, 여준원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전경희  
인터뷰 장소협찬 뽀뽀두업(5B2F)



내게 아프리카는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에서 시작됐다.  
그 곳을 가본 사람들은 안다.  
아이들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  
그 웃음소리마저 담고 싶은 마음을.

- 에티오피아에서

신미식 —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외 다수



# 차세대를 향한 소망



CGNTV는 2015년 사역의 핵심 4대 가치를 세우고, '차세대' 사역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지사들도 선교지의 미래를 바라보며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양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천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CGNTV의 차세대 콘텐츠들. 어린이 종합 프로그램 <나는야 주의 어린이>, 10년을 이어온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 <예수님이 좋아요>, 기타 '해외지사 차세대 프로그램' 들을 집중 조명한다.

## TV로 만나는 주일학교 나는야 주의 어린이

### <나주어>는... '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

2013년 4월 첫 테이프를 끊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이하 나주어)는 교계 유일한 어린이 종합 프로그램이다. 'TV로 만나는 주일학교'를 콘셉트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워십, 애니메이션, 챗트, 성경인물, 성경 공작실 등 다양한 코너를 선보인다.

<나주어>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세계 선교지, 주일학교를 염두해 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코너들이 2~7분 정도로 구성돼 주일학교에서 부교재로 상영하기에 적합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다. 실제로 <나주어>는 유튜브나 홈페이지의 클릭 수가 눈에 띄게 주말에 집중돼 있어, 프로그램의 주일학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중 있는 코너인 '우리 주일학교를 소개합니다(우주소)'는 국내 다양한 주일학교를 소개하는 코너로 교회들이 서로의 교육 방식을 학습하고 네트워크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들을 소개했고, 각 교회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다. 또 워십팀이 있는 교회는 프로그램 오프닝 코너에서 직접 워십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계기로 해당 교회에 전문 워십팀이 생기기도 했다. 절기마다 공연을 펼치며 주일학교 부흥에 이바지했다.

### <나주어> 추천... 이런 주일학교!

- ▶ '두언교회'는(22편/2104년 1월 24일 방영)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운다.
- ▶ '필리핀 덤프 사이트교회'는(40편 /2014년 10월 3일 방영) 필리핀 빈민촌에 세워진 교회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쁘게 예배드리며 신앙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은혜를 전한다.
- ▶ '향상교회'는(41편/2014년 10월 17일 방영) 예배 후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을 통해 몸도 튼튼, 말씀도 튼튼한 주일학교를 만들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어린이 전도에 힘쓴다.
- ▶ '다애교회'는(47편/2015년 1월 9일 방영)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섬기는 교회로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 요즘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 ▶ '예능교회'는(53편/4월 3일 방영) 음악으로 소통하는 교회로 신체활동과 음악을 통해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나주어> 효과... 인도비전 시청률 10위권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 어린이가 진행자 허민에게 방송을 보고 연락했다며 SNS 친구 맺기를 신청해 왔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나주어>는 인도비전 채널에서 시청률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비전 측도 이런 반응에 따라 더 많은 어린이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나주어> 제작진들은 방학 중 인도네시아 특집 제작도 고려중이다.

<나주어>는 그동안 코너 '우주소'를 통해 약 40여 개 주일학교를 소개했다. 시스템이 안정적인 대형교회를 비롯해 아이들이나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개척





## <나주어>의 유쾌한 두 에너지 “지구촌 어린이들과 만나 기뻐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스튜디오 녹화 현장. 진행자 신동식 목사와 개그우먼 허민씨가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저녁 8시 반,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낮빛에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어린이들 앞에 서기 때문일까? 표정이 알록달록한 세트와 잘 어우러졌던 두 사람은 카메라에 불이 켜지자마자 동시에 두 눈이 동그래졌다. 신 목사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허민은 동작을 크게 하며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카메라 뒤 무수한 꿈나무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의 두 MC는 시청 대상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과 더 없는 인연이었다. 이미 차세대 사역자인 신 목사는 누구보다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고, 개그우먼 허민 또한 외모나 인지도 면에서 제작진 모두 반기는 인물이었다.

신 목사는 전문 진행자가 아니었지만 이 일이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돼 참여를 결정했다. “어떤 분께서 어린이를 위해 투자하는 이런 방송이 없다며 이 방송 또한 어린이들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충성! 은혜로운 軍> MC를 맡았던 개그맨 김상태씨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된 허민은 “흔쾌히 결정했다”며 “어린이들을 만난다는 점이 신나고 좋았다”라고 했다. 그녀는 당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였다. 동료 개그우먼 오나미씨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 문턱을 밟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2년 여간 그녀가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처음 사랑을 경험한 신자의 순수한 믿음에서 기인한 듯 하다.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개그콘서트에서도 한창 활동이 저조했던 나름 슬럼프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일로 저를 불러주셨지요.” 함께 하는 신 목사는 그녀를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매 같다”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친근하고 친숙한 자매”라고 평했다.

두 사람은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지만 프로

그램을 통해 부지중에 얻는 바도 컸다. 허민은 “신앙 지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알게 되고 공부도 됐죠.”

신 목사는 제작 과정에서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자극을 받는다고 했다. “많은 스텝들이 최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이 예배에 미쳤죠. 예배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만원이면 60명의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다며 직접 땅콩과자 기계를 사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 후 저도 한참 사역에 적용할 방법을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후 매주 크리스찬 개그우먼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허민은 선배들에게 늘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그녀는 혼자 하는 녹음까지 처음과 같은 표정과 톤으로 임했다. 다음 일정으로 개그콘서트 회의도 남아 있었다.

신 목사 또한 여전했다. 그는 MC를 처음 맡을 때도 그랬지만 목사로서 차세대 사역을 시작할 때도 “스스로는 자신도 달란트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세대 사역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고, 함께 하게 되면 같이 꿈을 꾸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가 늦은 시간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촬영에 임한 이유인 듯 하다.





## <예조>를 만드는 사람들 어린이들의 친구 10년

<예수님이 좋아요>(이하 예조)는 이미 제목 자체가 고유명사다. <예조>하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큐티'를 떠올리게 되는 식이다. 어린이 큐티 책 <예수님이 좋아요>(두란노)를 인형극과 삽화로 재구성한 <예조>는 10년 넘게 어린이들의 말씀 생활과 함께 해 왔다. 10대에 처음 방송을 본 어린이가 20대 청년이 된 세월이다. 그동안 인형극을 맡았던 이들은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고 '투덜이'를 연기했던 성우는 60대가 됐다. 어떤 차세대 프로그램보다 우직한 진심으로 크리스천 어린이들과 함께 해 온 <예조>. 진행자, 인형극 연기자 등 그 세월을 일궈온 숨은 공신들을 만나 <예조>와 함께한 지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 '예수님이 좋아요'

“<예조>는 제작과정부터 은혜입니다.”



#### <예조> 제작진

<예조>의 구성회의는 매 순간 치열합니다. 회의 자체가 큐티 나눔이기 때문에 서로 속이야기를 나누고 눈물도 흘립니다. 성우 분들이 연기를 시작하실 때는 그 안에 담긴 말씀들이 현장을 감싸기도 합니다. 진짜 같은 스토리에 어떤 때는 가슴이 찡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말씀이 저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녹화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이 전파를 타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조>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초창기 조금 지쳐있던 한 스태프는 선교지에 아웃리치를 갔다 새 힘을 얻고 돌아왔다

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예조> 하는 시간만 기다렸다 눈을 반짝거리며 보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가 한 분도 키르기스스탄에 선교를 다녀온 후, 많은 아이들이 <예조>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드림이 언니 강민정 양은 올해 어린이날 결혼식을 올렸는데, 청첩장에 “어린이들에게 미안해요”라는 문구를 써 넣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시작한 큐티 습관은  
성인이 됐을 때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 드림이 언니, 배우 강민정

2008년 5월 시작했으니 <예조>와 함께 한 지 꼭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꼭 할 수 있기를 바랐지요. 인형인 누리, 뭉치, 투덜이가 이젠 귀엽고 사랑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지요. 소품이나 의상을 손수 만들기도 했어요. 허술한 부분이 많았지만 방송에선 그리 나쁘지 않았지요. ‘이것도 은혜인가?’ 싶었습니다.

어릴 때 시작한 큐티 습관은 성인이 됐을 때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조>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재밌게 인형들의 이야기를 보는 추억과 더불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조>는 대본을 처음 받으면 큐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촬영 오기 전엔 그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제 큐티책 본문과 같아 저는 다음 달 큐티할 말씀들을 항상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다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대본에서 힌트를 얻기도 한답니다. <예조>는 그동안 저의 영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연기지만 인형들에게 감정을 부여해주지요.”

**인형 연기자 이지원, 김은영, 이현정**

저희 인형극 경력은 20여 년 됐고, 현정 씨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예조>는 2000년도 즈음 CGNTV 전신인 인터넷 방송시절부터 했으니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현정 씨는 저희 보단 조금 늦게 합류하고요. 은영 씨는 그 사이 두 아이를 낳았죠. 인형들도 꽤 늘어났고요. 원래 인형 하나를 두 사람이 연기하는데, 저희는 셋이 하나씩 여러 인형들이 나올 땐 양손에 들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디테일에 신경이 쓰입니다.

인형 연기를 하다보면 어느 새 그 캐릭터와 하나가 됩니다. 제가 지금 50대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기를 하지만 표정과 대사를 할 때면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됩니다. 성우 분들이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만들어 내죠. 손으로 만드는 연기지만 인형들에게 감정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대본을 받고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많이 생각하지요. 어린이들의 대사나 행동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졌지만 아직도 저희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 분들이 잘 써주시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하나하나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주변 분들을 통해 한국뿐 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조>를 보신다는 말씀들을 들곤 합니다. <예조>의 영원한 친구 몽치 투덜이 누리가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늘 하나님에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조>를 보는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 상황을 겪다가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해외 지사 차세대 프로그램

선교지 중심에 있는 CGNTV 해외 지사 및 제작센터들은 선교지의 내일을 위한 차세대 준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CGNTV는 지난 2014년부터 차세대 사역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현지 교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미주, 인도네시아 및 태국, 아랍에미리트, 대만 CGNTV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일의 주역들을 끌어안고 있다.

##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You are special (일본/태국 편)'



**<유아스페셜 - 일본/태국 편>**

2008년 시작해 올해로 300회를 맞는 <유아스페셜-일본>은 일본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조명하며 일본 땅의 희망을 엿보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300회에서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 3명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그룹을 만들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5년 2월 20일 첫 방송된 태국

CGNTV의 <유아스페셜-태국>은 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청소년들을 만나 살아있는 이야기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들어본다.

**▶ 일본 CGNTV**

일본 CGNTV는 매년 1회 청소년 대상 전도 집회 <유아스페셜 전도콘서트>, <키즈페스티벌> 등을 일본 지역 차세대 목회자들과 협력해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교회의 50%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고려해 주일학교 교사 지원 및 어린이 교육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고 있다.

- 댄싱제네레이션 - 청소년 워십
- 킹덤에듀케이션 - 교회 학교를 위한 청소년 교육
- 바이블키즈 - 어린이 주일학교

**▶ 미주 CGNTV**

미국 내 한인 교회 중 차세대 전문 설교자가 없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 영어설교 DVD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해 9월 개국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 차세대 제작물 <나는야 주의 어린이>가 현지 채널 기독교 콘텐츠 시청률 10위권에 들어 본사는 방학시즌 인도네시아 특집 편을 고려하고 있다. ▶ **대만 CGNTV**는 대만의 청소년 사역단체인 '더 챔피언(The Champion)'와 함께 성경적인 청소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 CGNTV**는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아랍에미리트와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각각 다른 2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1부 '중동을 품은 아이들'은 아부다비에 사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과 그들이 터키로 아웃리치 간 이야기를 그린다. 2부 '아프리카를 품은 아이들'은 남아공에서 있었던 2014년 여름 유스 코스타 현장 등을 선보인다.



#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길목에서

CGNTV가 내한 선교사 1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에 반가운 목소리가 등장했다. 영화배우 추상미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것.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하며 다큐의 진정성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영화배우'에서 '엄마', '아내' 그리고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더하며 바쁜 시간을 보낸 그녀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 새로운 꿈, 영화감독

매일 새벽 4시는 영화배우 추상미가 한두 시간 기도를 드린 후 아이가 깨는 오전 8시까지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이다. 장편영화 감독 데뷔를 앞두고 한창 시나리오 작업 중인 그녀는 작품이야기로 만남의 물꼬를 텃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 입학하며 영화 연출의 꿈을 키워 온 그녀는 2010년 단편 영화 <분장실>, 2013년 <영향 아래의 여자> 두 편을 연출하며 감독으로서 출사표를 던졌다. 국내 여러 영화제에 초청된 두 작품은 주변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주제를 파고드는 연출력을 인정받았고, 영화감독 추상미를 주목하게

되는 발판이 됐다.

그녀가 준비 중인 장편 데뷔 준비작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폴란드 소설 <고아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1500여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폴란드에 위탁교육을 받으러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역사 속 수많은 전쟁은 어찌 보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됐지요. 그 역사의 가장 비참한 상징이 고아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도 고아에 대한 마음이 극진하셨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사랑이 기저에 잘 표현되면 좋겠어요.”

## <블랙마운틴>과의 만남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창 북한 전쟁고아들에 관한 영화 준비로 바쁜 그녀가 긴 공백기였던 와중에 <블랙마운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우연만은 아닌 듯싶다. 다큐는 북한 전쟁고아들에 대한 폴란드 교사들의 마음을 그린 영화의 스토리와도, 엄마인 그녀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나라가 한창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한국 땅을 밟았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헌신을 다뤘다. 당시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은 현재 미국 블랙마운틴 지역에 모여살고 있는데 <블랙마운틴>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한국 사랑을 조명했다.

“작업하면서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그분들에게 깊고 고요한 열정을 느꼈지요. 성경 말씀을 증언하면서 사는 것,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심령이 가난한 삶이 더 하나님의 빛을 보며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생생한 리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교 그리고 삶

<블랙마운틴>이 선교사들을 다룬다는 말에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는 그녀는 2009년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뮤지컬 배우인 남편 이석준씨를 포함한 연예인 성경공부 팀과 함께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기도 했다. 직접 원주민 마을 오두막 같은 교회를 찾아갔고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여러 선교사들의 눈물을 목도했다. CGNTV 안테나가 설치된 후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던 한 선교사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그녀 부부는 이후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CGNTV를 후원하며 기념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개인적인 기도제목 세 가지를 물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영화를 통해 주님의 숨결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 가정과 일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 뜻으로 세워가는 가정과 영화. 지금 그녀가 심고 있는 기도는 결국 그녀의 삶에 큰 꿈이자 지표다.







**블랙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못 다한 이야기  
**선교를 낳은 선교**

내한 선교사 130주년 기념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Acts)을 보여주며, 지금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속 인물들이 아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스토리였기에 작품이 주는 울림은 더욱 컸다. 그동안 한국을 위해 헌신한 내한 선교사들은 약 3000여 명 가량 되지만, <블랙마운틴>은 그들 중 현재 미국 '블랙마운틴'에 살고 있는 은퇴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을 집중 조명했다. 그들의 한국사랑은 은퇴 후에도 여전했고, 특히 자녀, 손주들까지 북한 선교 사역을 통해 부모세대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 세대를 관통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CGNTV는 <블랙마운틴>의 은혜를 뒤로하고 또 다른 선교의 족적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며 R.T 50여 분에 담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다. 그들의 사역은 또 다른 선교로 이어져 더욱 의미 깊은 순종이었다.

**“제 다리는 축복의 다리였습니다.”**

**#1. 몇 년 전 토플 부부 한국 방문 시(스탠 토플)**

몇 년 전 저와 제 아내가 순천 외곽에 있는 자은교회를 방문했어요. 한 젊은이가 설교를 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이 분은 감염된 제 다리를 치료한 분이십니다. 그동안 저는 이 분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무당이셨는데,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제 다리는 나쁜 다리가 아닌 축복의 다리였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섬사자들을 모두 전도했습니다.



스탠 토플 선교사



미아 토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2. 토플과 함께 했던 숨은 선교사들(스탠 토플)**

물리 치료사였던 텔먼 여사는 한센병 수술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그녀의 보조로 채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물리 치료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노목사이자 행정인이었던 더럼(Mr. Durum)은 물자를 주문하는 것부터 조직화하는 것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수술이나 의료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지요. 제가 애양원에서 근무할 때 부서장이었던 최서동 장로님은 의족을 만드는 의사였는데, 절단된 사람들을 위해 의족과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도 5년 뒤 합류해서 저희와 함께 15년 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아들이 북한의 북쪽 만주지역에서 의료선교 사역을 하며 의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 “소록도 5년, 이곳에서 24년 저희는 그렇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 #3. 토폴에 이어 애양병원을 맡은 유경은 원장, 아내 임보배 권사

미국인인 그가 한국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록도에서 돌보고 있던 6000여 명의 환자들이 걱정이었는데, 그가 서로 힘을 합쳐 소록도를 도와주면서 애양병원 일도 해나가자고 말해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나 모교회의 후원으로 병원을 현대식으로 고쳐나갔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재활하는데 중점을 두어 다시 사회에 나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경은 원장

아내 임보배 권사

### “선교를 배우고 섬 마다 더욱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 #4. 휴 린튼과 동역한 안기창 목사

휴 린튼 선교사는 섬을 좋아해서 동도교회, 서도교회를 비롯해 선죽도, 초도 등지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전도사로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저는 목사가 되면 더욱 섬 선교에 헌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뜻을 많이 격려해주셨지요. 1957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분은 꾸준히 학비를 도와주셨고 가정도 살피주셨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엔 선교부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섬 선교를 위해 공부한 내게 왜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까 의문이 생겼는데, 결국 그 일을 통해 섬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안기창 목사

### “그들이 저희에게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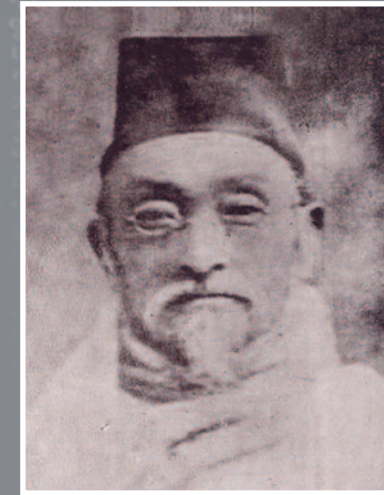
#### #5. 후손들의 북한 사역(CFK)(휴 린튼의 자녀 제임스 린튼)

(휴 린튼의 자녀 제임스 린튼) 제가 CFK 일을 즐겨워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랐고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것 같아요. 30년 동안 건축업을 하다가 1995년에 북한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그 때부터 북한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웰스프링’이라는 단체를 세웠고 북한의 식수를 위해 샘 파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때론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면 또 격려를 받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저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로이스 린튼 선교사

제임스 린튼 선교사



##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 팔러 돌아온 매서인, 서상륜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정착한 과정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새로운 선교의 희망이다. 낯선 사람들이 전하는 낯선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삶이 온전히 바뀐 선조들의 모습은 곧 복음의 생명력을 입증하는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부싯돌이 된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CGNTV는 그 복음의 빛, 역사의 길을 들여다봤다. 그 첫 번째로 최초의 성경 번역자인 매서인 서상륜을 살펴본다.

“내가 이십칠년 전에 대청국 광동성 우창지방 영구라 하는 항구의 여간 사소한 장사를 갔다가 뜻밖의 신병이 나서 거의 죽을 디경에 당하였나이다. (나의 사랑한 형제들이여) 그때에 감사하신 그리스도 서 그곳의 잇서 전도하시는 대영국 목사 마끈태씨에게 감동하사 나를 객점에서 자기 집으로 옮기고 동국 의사를 하여 매일 이삼차식 진병 하매 거의 두 주일동안에 회생하였나이다. (나의 사랑한 형제들이여) 그때에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감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그때 처음 마끈태 목사에게 그리스도 예수씨 복음을 듣고 성경책도 열어 보았나이다.” (“서선칭 상륜의 경력”, <그리스도신문>1901. 9. 19) -서상륜이 처음 선교사 매킨타이어를 만났던 계기





(좌)서상륜기념비건립(동아일보 1938.10.17), (우)소래교회



로스의 만주선교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은 오는 8월(날짜 미정) 이덕주 교수의 상세한 강의로 CGNTV를 통해 방송됩니다.

### 1. 양반장사꾼

서상륜은 1849년에 평북 의주에서 서석순(徐奭淳)의 장남으로 출생했고, 경조(景祚)란 이름으로 불리는 동생을 두었다. (장로교 최초 7인 목사 중 한 명이 되는 인물) 달성 서씨 승사랑공파(承仕郎公派) 후손인 그는 고조부 대까지는 서울에 머물면서 벼슬을 한 전통 양반 가문이었다. 하지만 증조부 때 의주로 이주하면서 정치 진출의 길이 막히게 된다. 선비[士] 이외의 직업, 즉 농(農)·공(工)·상(商) 진출이 불가피했다. 서상륜도 이를 이유로 상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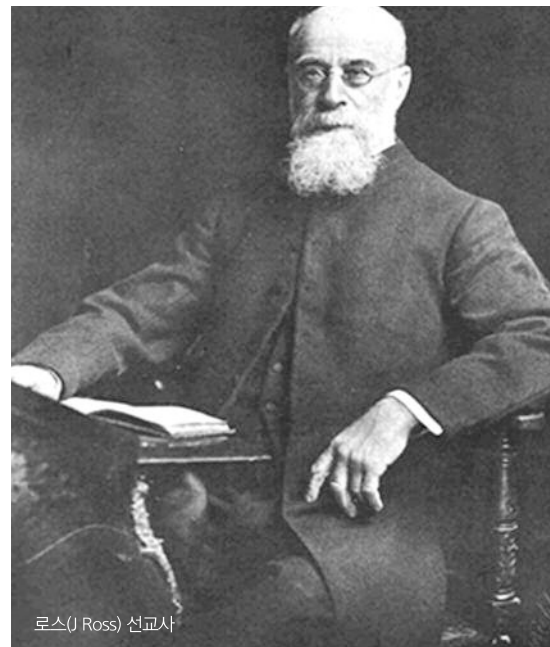
### 2. 영국 선교사 매킨타이어를 만남

항구 도시인 영구(營口)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심한 병에 걸린 그는 영국 선교사 '매근태(매킨타이어)' 를 통해 영국인 의사의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일을 겪는다. 매킨타이어는 그에게 예수 믿기를 권고했고, 그는 의주 친구들을 따라 매킨타이어가 섬기던 중국인 교회에까지 발을 들여 놔다. 하지만 그는 당시 선교사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초기 개종자들처럼 종교 탐색 기간을 가졌다.

### 3. 선교사 로스를 만남

서상륜은 개신교 첫 세례인 중 한 명인 백홍준의 전도를 받아 본격적인 성경 탐독을 시작했다. 반면 본업인 장사는 시들해졌다.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진 그는 결국 1년 만에 의주 생활을 접고 다시 압록강으로 건너갔다. 그때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 Ross)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는다. (1881년 5월)

당시 로스 선교사는 1879년 5월 안식년 휴가 차 본국에 돌아갔다가 1881년 5월에 만주로 귀환해 지연됐던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만주선교의 거점이었던 영구를 매킨타이어에게 맡기고 자신은 봉천(지금 심양)에 인쇄소를 세워 본격적인 한글 전도문서와 성경 인쇄에 착수했다.



로스(J Ross) 선교사



만주 잉쿠거리

언더우드 정동사택



최초 누가복음

### 4. 매서인으로 활동

(\*매서인 - 선교 초창기 때 전도지나 성경(쪽 복음)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세례를 받은 서상륜은 로스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다. 로스는 그를 매서인으로 임명했고 1882년 10월 6일,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안-복음전서> 한 상자와 한문 성경을 들려 국내로 파송했다.

서상륜은 서울로 올라가 남대문 창동에 집을 얻어 은밀하게 전도를 시작했다. 이후 1883년 5월, 로스는 서울에 정착한 서상륜에게 평양 출신 식자공을 통해 400여 권의 단편 성경을 비밀리에 전달했고 서상륜은 이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그 결과 1884년 말 '70명의 세례 지원자' 를 얻었고, 그의 동생 서경조도 믿음을 갖게 됐다. 특히 서경조는 로마서를 읽으며 바울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거주하던 소래에서 전도하며 1884년 신앙 공동체도 형성했다.

그러던 중 1886년 서상륜은 서울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났다. 서상륜은 선교 초기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함께 황해도·평안도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듬해(1887년) 1월, 서상륜은 소래에 있는 세례 지원자 4명을 인솔해 서울로 올라왔고 그들은 언더우드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1887년 9월 27일 한국인 세례교인 14명은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사택 사랑방에서 한국 최초로 '조직 교회' 를 형성했다.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복음 수용과 전도에 의해 한국교회가 수립된 것이다.

| 출처 |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이야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2003)

#### • 이덕주

- ▶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소장 /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 ▶ 저서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한국교회와 여성> 외 다수



# 32년 선교사의 깊은 선교지 사랑

## 32년 사역, 새로운 동역자

“천국 잔치에 온 것 같아요. 아름다운 행사에 올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 해 9월 열린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행사 <러브 인도네시아>에 참석했던 현지인의 말이다. 당일 현장은 양국의 문화를 공유하며 14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진 기쁨의 한마당이였다. 희망찬 출발이었다.

단일 국가로 세계에서 무슬림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장이 펼쳐졌을까? 인도네시아 CGNTV는 그들에게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함께 할 바깥 이웃이자 동료 같았다.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에 무려 32년을 헌신해 온 김종국 선교사의 말이 그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KWMF(세계한인선교사회) 회장이자 현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중 그 땅을 가장 오랫동안 섬겨 온 장본인이다.

“CGNTV의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즐겨 보며, 특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영적인 충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故) 하용조 목사님과 그의 추억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방송은 있지만 콘텐츠들이 빈약했는데, 저희는 CGNTV가 그 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출범하면서 한인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그동안 CGNTV를 통해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개국 행사부터 기대와 관심 속에 협력했다”고 전했다.

## 인도네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꿈

김 선교사는 1983년 파송을 받아 올해 61세가 됐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복음 장로교단을 설립했고, 현재 교단이 된 65개 교회와 전도소를 개척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2020년까지 200개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을 설립해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학교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 2012년에는 선교학 석사과정, 2013년도에는 목회학 박사과정도 인준을 받아 교회 지도자, 선교사 후보, 선교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돼 교회 개척의 꿈이 다소 밝아졌다.

손이 모자란 드넓은 선교 어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들을 통해 이슬람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뼈를 묻기로 한 그의 평생 꿈이다.

## 선교지에 대한 깊은 애정

1998년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평생 인도네시아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그에게 성경공부를 받던 이민국장의 도움으로 1998년에 인도네시아 국적도 받았다. 그가 깊이 선교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동안 그의 세 자녀도 방송인, 의사, 금융인 등으로 어엿하게 성장해 그 땅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지만 그가 보낸 지난 32년 동안 큰 도시마다 대형교회들도 생겼고 전도와 기도의 변화들도 있었다. 한인교회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도 더욱 이 땅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

“CGNTV가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채널을 만들어서, CGNTV 실무자들과 시니어 한국 선교사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협력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상 선교사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로드맵을 그려나간다면,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김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인도네시아 내 사역자들은 인도네시아 CGNTV를 진심으로 반기며 동역자의 마음으로 더 앞서 사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는 선교지를 깊이 사랑하는 이들의 숨길 수 없는 열정이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아침에 소망이 있는 이유이다.



# 통일한국을 위한 길



CGNTV는 2015년 사역을 위한 핵심 4대 가치로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사회선교(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를 테마로 연내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4편을 선보인다. 지난 3월 '사회선교'를 주제로 한 제 1부 <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逆)파송이다>를 방송한 이후, 6월 '통일한국'을 염원하며 제 2부 <한국교회,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다>를 방송한다.

이에 발맞춰 CGNTV 강연프로그램 <나침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특집 강연 4편을 방송한다. 북한사역 전문 강사 이보연 씨와 임창호 교수를 초빙해 북한 사회의 변화 및 통일을 위한 쟁점 등을 흥미로운 일례들과 함께 소개한다.

## 개국10주년 특별기획 제 2부 <한국교회,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다> (다큐멘터리, 방송 6월 말 예정)

<한국교회,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다>는 통일한국을 꿈꾸는 한국교회가 통일 전후 되짚어봐야 할 부분들을 집중 조명한다. 탈북자들과 함께 현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보고,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을 향한 길을 모색해 나간다. 점차 줄어드는 남북교류, 탈북사역이 축소돼가는 한국교회와 6.25세대가 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차세대들의 통일 인식도 진단한다. 이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며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을 비롯해 북한 사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만나 통일 한국이 나아갈 바 등을 소개한다.



## 호국보훈의 달 특집 <나침반>

### 1. 강사 이보연(통일교육원 강사)

- ▶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6월 22일(월) 오전 11시)
- ▶ <통일을 바라보는 남북한 주민들의 시각> (6월 29일(월) 오전 11시)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을 들어본다. 이보연 씨는 새터민이자 통일부 통일연구소 강사로 활약 중이며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세뇌교육과 우상화 교육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김일성 시대 북한주민들의 상황과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현실을 바로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더불어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북한 내 각종 문화컨텐츠(드라마, 음악)의 유입과 소문에 관해 이야기하며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대해서도 눈뜨기 시작한 북한 주민들의 개선된 생각과 모습들을 전해준다.



### 2. 임창호 교수(고신대학교, 북한 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 연합 이사장)

- ▶ <통일,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다> (6월 23일(화) 오전 11시)
- ▶ <통일의 물결을 예비하라> (6월 30일(화) 오전 11시)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빨리 통일이 오면 좋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조사대상 중 23%, '서둘러 통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57%, '통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17%나 됐다. 즉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이루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70년간 남과 북의 분단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 국내뉴스

## 2015 CGNTV 직원 여름 아웃리치

CGNTV 직원 여름 아웃리치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다. 직원 총 120여 명이 6월 16일 대만을 시작으로 11개 국가, 16개 지역으로 나뉘어 9월 이후까지 선교지의 여름을 달굴 예정이다. 해당 국가로는 지사 및 제작센터들이 있는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를 이룬다. CGNTV 직원들은 조직된 팀에 따라 정기적인 기도, 준비 모임을 갖고 안테나 설치 및 해당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선교사역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CGNTV 개국 10주년을 맞아 부활주일인 지난 4월 5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CGNTV 전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도와 후원으로 성원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CGNTV가 지난 10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장으로 꾸며졌다. 스마트폰을 켜 때마다 성경말씀과 중보기도문을 제공하는 'CGNTV 하모니 앱'이 소개됐고, 크로마 스튜디오를 설치해 부활절의 의미와 선교지를 담은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타 다과를 즐기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와 CGNTV 안내데스크 등도 마련됐다.



## CGNTV 직원 영성수련회

CGNTV는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직원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직원들은 예배, 교제, 기도회 등을 통해 사역에 지친 몸과 마음, 영성을 회복하고 방송 선교사로서 다시 한 번 소명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전 직원 도미노 경연대회'도 진행돼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일 저녁 집회에는 박은조 은혜샘물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로마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 CGNTV 드림은 맘(Dream-ON MOM) 행사

CGNTV가 드림은 맘 행사를 개최했다. 드림은 맘(Dream-ON MOM)은 CGNTV와 동역하는 여성들의 연합기도모임. 지난 4월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성 중보기도팀, 여성 운영위원, 여성 후원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간증과 더불어 세계적인 첼리스트 김두민과 클라리넷 연주자 이승권의 협연, CGNTV 유재건 대표와 정상건 운영위원장, 배종수 실행위원장으로 구성된 '232 트리오'의 축하 공연, 유 대표의 비전 나눔, CGNTV를 위한 중보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드림은 맘' 기도모임은 분기별로 열릴 예정이다.



## CGNTV 중보기도팀 일일 아웃리치

CGNTV 중보기도팀들은 지난 5월 각각 월요일(사진 위), 금요일(사진 아래)팀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월요중보기도팀은 18일 총 16명이 참석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모원'을 다녀왔다. 12명의 금요팀원들은 CGNTV 후원교회인 경기도 광주 '진새골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월요팀은 초창기 선교사들의 사역을 둘러보며 CGNTV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금요팀은 후원교회를 위해 합심기도 및 격려 시간을 가지며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새골 온누리교회는 매주 셋째 주 CGNTV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 <나침반> 서울여대 공개녹화

CGNTV 강연 프로그램 <나침반>이 지난 5월 27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6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녹화로 진행됐다. 폴앤마크연구소 박신영 이사과 국대 F&B 김상현 대표가 강사로 나서서 청춘들을 향한 유익한 메시지들을 전했다. 박 이사는 '좌절감을 이기는 삽질정신', '막막함을 이기는 기획의 정석', 김 대표는 '꿈꾸는 자가 가장 무섭다', '인생의 진리 찾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 해외뉴스

## 인도네시아 CGNTV \_ 운영·자문 위원회 발족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CGNTV와 한국선교사협의회, 한국목회자협의회, 기타 현지 크리스천들이 의기투합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6월 5일(금) 오전 6시 30분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CGNTV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CGNTV 본사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총괄본부장 김경훈 목사를 비롯해 행사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상재 지회장(CBMC자카르타지회)의 사회로, 이재정(운영위·자문위 (전)설립추진위원장) 목사가 개회기도, 장영수(한국목회자협의회 회장) 목사가 말씀선포를 담당할 가운데,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이호덕 장로(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자문위원장으로 김재룡(한선협 회장) 선교사를 위촉했다. 이 자리를 위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및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운영위·자문위는 인도네시아 CGNTV가 지난 해 9월 개국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조직돼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한 CGNTV 사역에 현지 관계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입증했다. 신임 운영위원장 이호덕 장로는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CGNTV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에서도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CGNTV의 많은 콘텐츠를 현지화 하고 인도네시아 2억 5000만 인구가 CGNTV를 보게 되는 그날을 위해 더욱 힘쓰며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장 김재룡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CGNTV가 개국한 후 지난 9개월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수백여 명의 이곳 선교사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현지 크리스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총 40여 명으로 조직됐고, 자문위는 목회자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20여 명이 참여했다. 향후 운영위는 인도네시아 지사의 운영·재정, 기도 후원을 주로 담당하고, 자문위는 콘텐츠 기획·자문 및 사역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미주 CGNTV \_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미주 CGN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중남미선교 교회 대항 족구대회(5월 16일)'가 27개 팀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고, 미주 지역 위성안테나 설치 아웃리치(6~8월),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기념 '라크마 음악회'(7월 11일)가 LA 디즈니홀(www.laphil.com)에서 열린다. 성악가 배재철 등 출연.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는 오는 8월 14일 알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일본 CGNTV \_ <바이블 칼리지 신학강좌> 개설

일본 CGNTV는 신학교 활성화 및 평신도 헌신자 육성을 위해 관동, 관서 지역의 신학교 교장 및 신학 교수를 초빙 <바이블 칼리지 신학강좌>를 개설한다. 하반기에는 스튜디오 구축 및 사무실 이전을 계획 중이다. 일본 CGNTV는 이를 통해 일본 선교를 위한 대외적 활동 및 제작효율 향상, 출연자 섭외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 CGNTV \_ 이집트 제작센터 건립 기도

아랍에미리트 CGNTV는 이집트 제작센터 건립을 기도하며 다각적인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자문위원 그룹(에티오피아 요나스 목사, 교회 총괄 관리자 데이빗 위닝, 아랍교회 조셉 파라 팔라 목사 등) 및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후원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집트 반석 미니스트리 팀과 함께 개종한 무슬림들을 위한 콘텐츠도 기획 중이다.



## 대만 CGNTV \_ 은혜의 7주년 감사 예배

대만 CGNTV는 지난 6월 18일 개국 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현지 교회 및 선교단체 등 지난 7년 간 동역한 이들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향후 사역을 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대만의 청소년 사역단체인 '더성저(The Champion)'와 함께 청소년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 태국 CGNTV \_ 현지 선교사들 감사 이어져

태국 CGNTV는 최근 CGNTV에 대한 현지 선교사들의 다양한 간증들을 소개했다. 이선옥 선교사는 "기독교인 0.4%인 복음의 불모지에서 CGNTV를 통해 영적 충전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고, 홍영숙 선교사는 "15년 간 동역한 선교부와 이별하면서 사역의 길이 외롭고 막연했는데 <CGNTV 비전타임>을 통해 회개하며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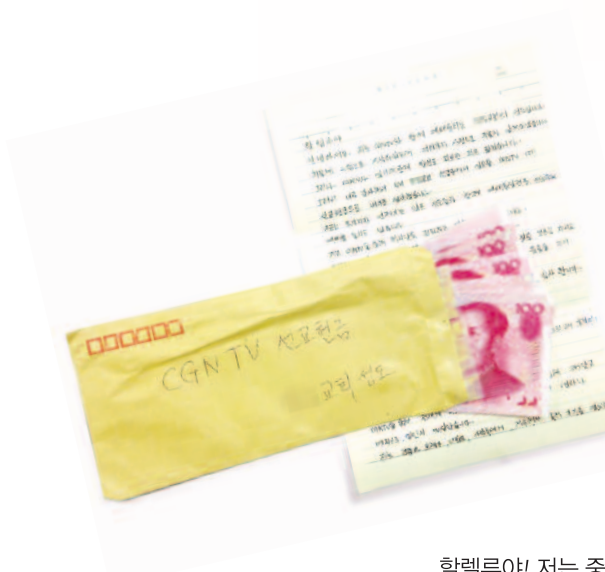


**CGN 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지구촌 반상회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 (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방교회) 08:50 [말씀] 유진소 목사(ANC) 10: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 (영어자막) 07:0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0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8: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지구촌 반상회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0: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1:30 미션 로드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매트 찬들러의 야고보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열반인온누리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톨리안 차비진의 완벽해지는 법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지구촌 반상회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2:3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지구촌 반상회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노트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4:50 [말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칩 인그램의 사랑과 성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5:3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30 [CGN TV 개교 10주년 기획 세미나]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23:3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아시아>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지구촌 반상회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방교회) 23: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9:3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20:10 햇볼트리니티 성경강좌 <골로새서> 21: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오해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20:10 온누리 회복축제 <치유의 임재>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50 미션 로드 23:20 [말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20:10 [CGN TV 개교 10주년 기획 세미나]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21: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5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3: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추양재단 목회강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대린 패트릭의 구약 인물 열전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 (영어자막) 19:00 추양재단 목회강좌 20:00 지구촌 반상회 20:40 [말씀] 유진소 목사(ANC)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2:30 미션 로드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00:20 생명의 삶



# 중국 한 성도로부터



CGNTV로 예배를 드리는 중국 모교회의 한 무명 성도가 교회 헌금 중 일부를 CGNTV에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며 1000위안(한화 약 18만원)을 봉투에 담아 보내왔다. 손 편지를 동봉한 그는 복음이 차단된 땅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이의 감사와 기도를 진심을 다해 한 줄 한 줄 써 보냈다.

할렐루야! 저는 중국에서 CGNTV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처음엔 4명이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은 저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CGNTV가 있어 예배를 드리며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 교회 헌금 일부를 이렇게 CGNTV에 선교헌금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CGNTV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조선(북한)에서 태어나 낯선 중국 땅에서 아무 것도 모르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한 한국 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합니다. 또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귀한 삶. CGNTV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깊이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흘러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CGNTV를 통해 받은 은혜를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적은 돈이지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원안내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돼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1. CGNTV 방송지역 후원

#### 정기후원

- CMS 자동이체 (Cash Management Service)  
<http://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클릭, 정기후원약정서 작성
-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 가능

#### 모바일 후원

- CGNTV Live앱에서 정기후원 터치
- 모바일 웹 m.cgntv.net에서 후원하기 터치 (신용카드, 휴대폰 후원은 **일시후원** 터치)

#### 일시후원

-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클릭
- ARS 전화후원 : 060-700-1660 (한 통화에 5천원)

※ 정기/일시 후원문의 : 02) 796-2243

**후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 (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구재영,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득환,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성목, 김성진,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성욱,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은영,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심상달, 안대훈,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익준, 유이상, 유인선, 유주호, 유철호, 윤덕순, 윤원식, 윤호석, 이관수, 이국주, 이길수, 이남식, 이백음,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민, 장경식,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유강, 최정수, 최훈화, 하성기, 하주현, 한상준,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케이블 TV

- ▶ **cj** 영로비전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GM**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NIB** 남인현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 IPTV

- ▶ **alla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품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http://www.facebook.com/cgntv) - 트위터 [www.twitter.com/cgntv](http://www.twitter.com/cgntv)





# 뜻대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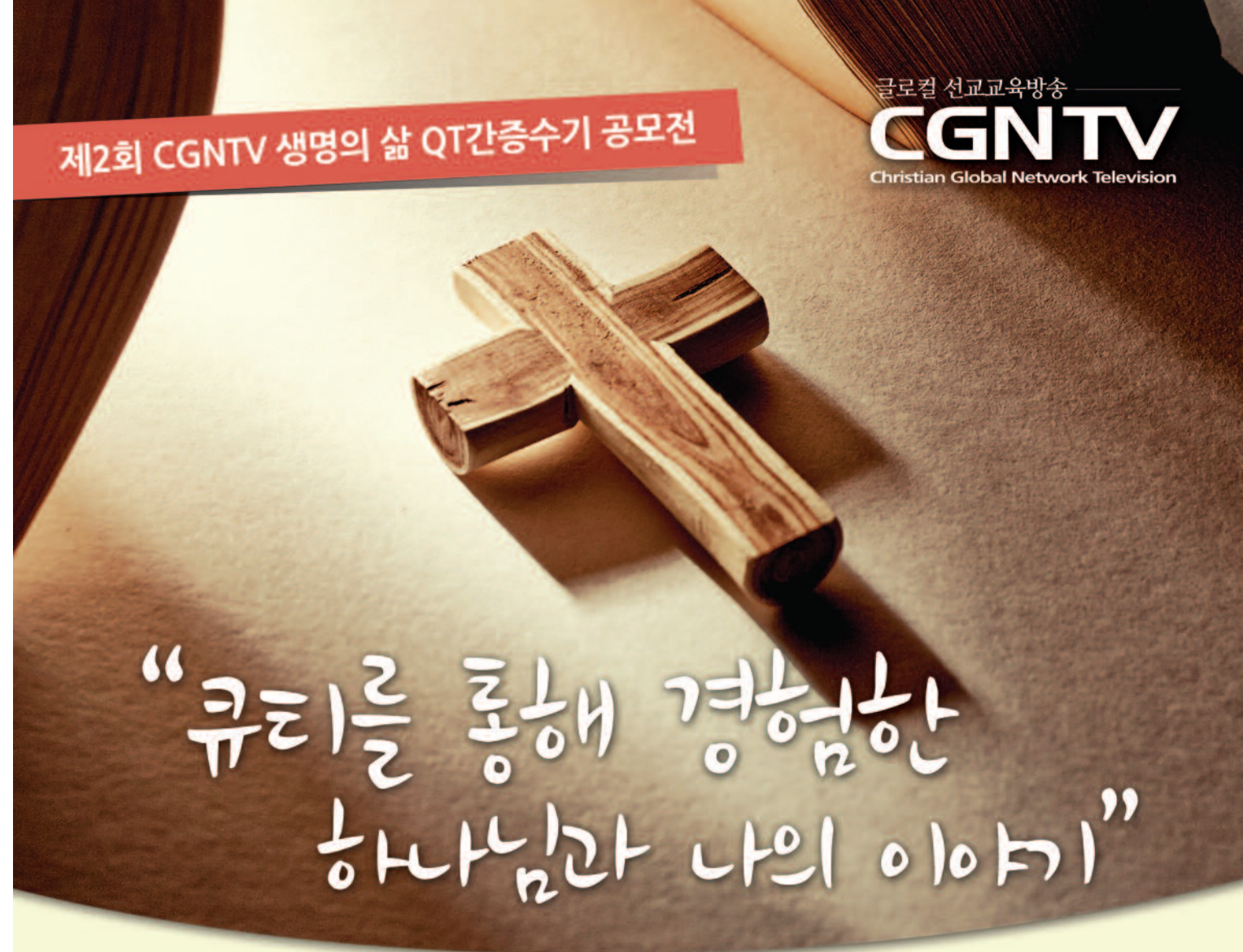
CGNTV 실행위원장 배종수 장로

올해로 73년을 살아온 저는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민족 해방, 한국전쟁을 비롯해 기업인으로서 한국 외환위기, 국제 금융 위기 등도 지나왔습니다. 폐암, 신장암 선고를 받아 질병과 외로운 사투를 벌이기도 했고 위험한 사고의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이 50세가 넘어 주님을 영접했지만,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여러 난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온전히 사해주시고, 실수도 덮어주시고, 부족한 능력과 메마른 영혼도 때마다 채우십니다. 그 사랑을 돌아볼수록 그분을 우리만 아는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싶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CGNTV는 우리가 발로 다 찾아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시작됐고, 지금도 전파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시대적 사명인 이 미디어선교 운동에 더욱 뜨겁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일궈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계 복음화의 뜻대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제2회 CGNTV 생명의 삶 QT간증수기 공모전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 ◎ 일정

- 접수기간. 2015. 7. 1 (수) ~ 8. 31 (월) / 2달 간
- 발표. 2015. 9. 16 (수)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 주제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 ◎ 공모형식

- 응모양식 및 분량.  
수필 형식, A4용지 1~2장 내외, 수기작성 가능

### ◎ 응모방법

- CGNTV 홈페이지 공모전 접수페이지
- 이메일 접수(cgnqt@cgnmail.net)
- 우편접수, 방문접수

### ◎ 필수기재사항 및 유의사항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 교회, 큐티 날짜와 큐티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 접수 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CGNTV에 귀속됨

### ◎ 시상계획

- 최우수상 <1명> – 아이패드미니
- 우수상 <3명> – 외식상품권(15만원상당)
- 입상 <5명> – 성경책 + 성경 독서대
- 큐티상 <10명> – 생명의 삶 6개월 정기구독권
- 참가상 – 볼펜 및 기념품

※ 문의. 02)3275-9518 / www.cgntv.net